

“한일 정상회담 국조 추진 검토”

민주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서 “신을사조약 버금가는 굴욕외교 용납할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론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채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동원 선포대상인부터 독



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날날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찌 해명하겠다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

라진다”고 꼬집었다.

또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이에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김태호 1차장은 제3자 변제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 관측했다. 우리로는 확신과제하던 해법이다”고 언급한 점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조약’이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 파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운영위원회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 반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



김상윤 전북녹색당 공동위원장과 진보당 전북도당 소속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 등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행의 시대 넘어, 개혁·미래로”

전북녹색당-진보당, 전주를 재선거 앞두고 연대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녹색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연대와 함께 “퇴행의 시대를 넘어 개혁과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윤 전북녹색당 공동위원장과 진보당 전북도당 소속 오은미 도의원(순창) 등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가의 자원과 예산을 소수 재벌과 부자 배 불리기로 전용되게 할 수는 없고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망가뜨리는 기후 악당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

권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는 지금 철새 정치로 되돌아갈 것인지 종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의 원천을 이곳 전주에서 강성의 후보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북녹색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모든 정책 결정에서 기후 위기 해결 방안 최우선 고려 △시민 안전을 위한 탈핵(원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생명력을 지키는 정책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협의했다. /뉴스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매주 순회 개최”

전주 풍남문광장서 봉헌 후 비상시국 회의서 결정 내리

전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매주 개최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전북 전주에서 봉헌한 검찰독재 타도와 매관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마친 뒤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 매주 전국을 돌며 시국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송년홍 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를 임명했다. 비대위에는 전국 14개 교구별로 1~2명의 신부가 참여한다.

미사는 매주 지방에서 열다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미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는 “오는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 다음 시국미사는 언제 봉헌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전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강제동원 제8차 배상안,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미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하고 있다.

사제단은 그동안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목소리를 내왔지만 시국미사를 여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주례를 맡은 경북 안동교구 김영식 신부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간을 확대하거나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철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며 “한·미·일체 협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독도 해상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현

정권은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며 “현 정권을 퇴진 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 말았다. 이제 그 숭고한 뜻을 하느님께 아뢰고 부속함을 하느님께서 채워 달라고 기도 드리는 미사를 봉헌하겠다”고 미사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교구 김진화 신부는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에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면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토록 확정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루아침에 찢어버리고 식민지배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외규에 치즈 오므라이스 먹고 희화화락 거리는 대통령을 보나...”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의 민족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왜구의 손에 넘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며 “저들을 향해 제발 정신차리라고 외치자. 하느님과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방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며 “무례한 처신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지만 굴종, 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는 너무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뉴스

4·5 전주를 재선거 후보자 ‘말·말·말’

“전주 서부권·도심 구간 교통난 해소할 것”

임정엽 후보 “정여림로 4차선 확장·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림로 확장을 통해 전주 서부권과 도심 구간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정엽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서부권과 도심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림로 확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육교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공사와 정여림로 4차선 확장공사를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 후보는 “육교개로는 전주에서도 손꼽히는 상습 정체구간”이라며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서부권

에 집중된 교통량을 주변 도로로 분산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고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계획 중이다.

임 후보는 “황방산에 1.7km 길이의 터널을 개설하고, 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원활하게 도심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쿼비 예산과 국회 입법, 도시계획, 도시공학이 요구되기 때문에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연결도로까지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도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임정엽 후보는 “황방산 터널 개설과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답답한 도로망의 확장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 광법’ 통과와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김윤덕·정운천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회계연도 결산 감사 위원 선임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1일 제 28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4 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정만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고성환 의원은 정읍시는 정읍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022 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심사가 있으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전심사 활동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당일일정으로 6건 의결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해 지난 20일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심의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대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학생 및 가족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농촌유학사업 전담부서 구성 및 지역 고유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유학 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